

건강 칼럼

결핵

최근 모 중학교에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결핵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김이곤 구암한의원장

결핵은 Mycobacterium Tuberculosis 라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결핵균은 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공기를 통해 전파된다. 활동성 결핵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할 때 배출되는 공기 중에 떠 있는 미세한 침방울에 작은 결핵균이 숨어 있다가 주위 사람들이 숨을 들이킬 때 그 공기와 함께 폐 속으로 들어가 감염된다.

영화 같은 곳에서 보면 환자가 기침하면서 상당양의 피를 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서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은 가래에서 소량의 피가 나오는 정도이다. 만일 결핵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흉부 X선 검사를 받아보고 이때 검사결과 결핵이 의심된다면 객담(가래) 검사를 통해 결핵인지 확인하게 된다.

리 생겨 여러 항결핵제를 동시에 복용해야 한다. 1~2개월 약을 복용하면 대부분의 결핵균이 죽고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호전되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때 약을 중단하면 완치되지 않고 재발하게 되고 치료 시 약 복용을 불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결핵균이 약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치료를 실패하게 된다. 이를 약제내성 결핵이라 하는데 따라서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한 장기치료를 해야 한다.

에 있으나 인체의 면역력에 의해 억제돼 있는 상태를 잠복결핵감염이라 하는데 이때는 증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하지도 않는다. 흉부 X선 검사도 정상이며 단지 투베르클린 피부 반응검사만 양성으로 나타난다. 결핵균에 감염되면 그중 90%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가고 5% 정도 1~2년 안에 발병하며 나머지 5% 정도는 그 이후 발병하기도 한다. 결핵균에 감염된 이후 대개는 여러 이유면 면역력이 저하되면 결핵으로 발병하는데 HIV 감염자, 6세 미만 소아, 당뇨, 흡연, 면역억제제 치료자, 마약 등 불법 약물 남용자 등이 활동성 결핵환자로 발병할 위험이 높다.

독자재언

음주운전, 이제는 완전 근절!

안전한 봄 날씨를 넘어 낮에는 한여름 같은 날씨를 계속되는 요즘, 야유회나 동창회 등 각종 모임과 행사 역시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즐거움 대화 속에는 술이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화인데, 여기에 운전이 더해지면 맑은 달라진다.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니 정도는 관할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돌아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 0.03%부터 운전면허 정지 수처에 해당하고, 면허취소 기준 역시 0.10%에서 0.08%로 낮아졌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나루히토 일왕 부부와 만나는 트럼프 미 대통령 부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오른쪽)이 27일 일본 도쿄 왕궁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해 의장대를 사열한 후 나루히토 일왕(왼쪽), 멜라니아 여사, 마사코 왕비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나루히토 일왕과 만났다.

사설

군산형 일자리 어찌되고 있는가?

군산형 일자리가 어찌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광주형 일자리 논의가 마무리 되면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줄 알았는데 말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극적 타격을 본지도 오래 됐는데 여태 감감 무소식이라 답답하다. 광주형 일자리가 마무리 되면 군산이 제2의 광주형 일자리 지역으로 논의될 거라고 여당 대표도 말한 적이 있는데 말이다. 실직자들을 포함해 군산시민들은 하루 하루가 죽을 맛일 터이다. 전북도가 군산 살리기를 위해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겠다.

가 회복하려면 앞으로도 수 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군산형 일자리의 규모를 확실하게 해두는 일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시민의 뜻에 부응해 군산 살리기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것도 올해 상반기에 평가를 보여줘야 한다. 군산의 경제 몰락 때문에 전북 전체의 경제가 함께 고통하고 있는 자금이니 말이다. 다시 강조해 당부하거나 군산을 살려내기 위해 인간 힘을 써야겠다. 한시적으로만 그럴 게 아니라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때까지 그래야 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날 군산 경제가 쓰러질 때 발만 동동거렸을 뿐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제 것처럼 무력해서는 안 된다. 지난날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말한 게 있다. 제2·제3의 광주형 일자리 계획을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군산과 구미와 대구가 구체적인 계획 대상이라고 했던 게 생각나는 것이다. 전북도는 그 발전의 행간을 심상하게 넘겨서는 안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재문 찾기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군산형 일자리를 띄우기 달구어주던 경쟁에서 이길지말지 한데 너무 조용하니 어이가 없다고 천명했으면 필히 살려 내는 것을 보여주어야 맞다.

중앙 집중적 패러다임을 개혁해야

중앙 집중적 패러다임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므로 이점에 전북도는 평가가 보여줘야겠다. 중앙 집중적 패러다임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쪽이 대통령 소속의 자치분권위원회와 한국정책과학회이니 하는 말이다. 이번엔 전주에서 재정분권 학술대회를 가졌는데 그 행사가 조금이라도 실효를 거둘려면 예산처럼 앞장서는 인된다. 그래서 다시 또 전북도에 할 말이 있다. 지역 발전 행보가 구체적이어야겠다.

다. 도민의 요구를 현안으로 끌어올려 반드시 성취시키고자 말했다는 각오로 나가야 한다. 전북도에겐 뚜렷한 행보를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무슨 현안이고 추진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지금 지역 발전 관심사의 맨 앞에 놓인 새만금 사업만 해도 그렇다. 속도감 낮은 추진 양상을 보자면 답답하다. 전북도에겐 할 말은 또 있다. 지역 소득을 구체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신경을 써야겠다. 전북도는 우리 지역이 웰빙 고장이라고 여러 차례 공표해왔다. 그런데 그 공표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것이었는지 의문이다. 웰빙 고장이냐 아니냐는 소득이 말을 하게 돼 있다. 20년 가까이 1인당 총소득이 전국 꼴찌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러므로 전북도가 힘을 쏟는 주박적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야 한다. 경제 현안을 챙기고 있다 해도 그게 소득과 관련해 영향력이 없거나 적다면 헛수고이다. 전북도는 자치분권위원회와 한국정책 과학회의 주장에 환영의 맞장구를 쳐야 한다. 지금은 중앙 집중적 패러다임을 개혁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